

유관단체를 찾아서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업계 공동발전과 경쟁력 강화 견인 내년 폐유리 재활용센터 독립운영 계획

유리공업 발전 견인차

인류 최초의 인조보석이라 일컬어지는 유리가 우리나라에서 융성했던 시기는 조선시대로 짐작되고 있으며, 유리병의 등장은 경부·경인선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주류병이 등장,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유리공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원료자원의 순환성 제품이라는 것이며, 종류가 많고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서도 가공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리공업은 지난해 판유리가 1천9백36만9천상자가 생산돼 주로 건축용과 자동차용으로 95%가 사용되었으며, 병유리 산업은 자동제병 11개사와 수동제병 13개사에서 약 70만1천톤이 생산되었는데 국내 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98.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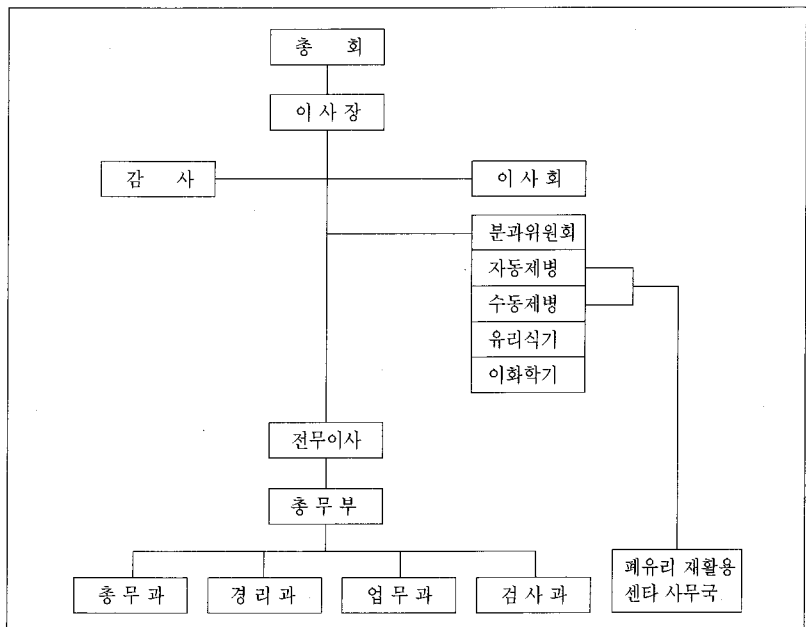
유리산업의 최선단에서 유리산업 발전을 위해 설 새 없이 노력하고 있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

광열)은 1951년 전신인 사단법인 대한유리공업협회가 설립되면서 태동을 준비했고 1962년 4월14일 12개사가 모여 창립총회를 갖음으로써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유리조합은 초대회장에 지명홍 조일초자(주) 사장을 선출하고 규약·

규정의 제도 개폐, 수수료 부과와 징수방법, 이사장 직무대리 규정 등을 위임사항으로 넘기고 창립년도 사업계획을 제품의 규격제정, 사업자금의 대출알선, 공동구매사업, 사업조정, 연료확보, 유리제품류의 생산통계, 용기 재사용 금지운동 전개, 공제사

[표 1] 조합 가구조



업, 유리제품류의 선전으로 잡았다.

조합의 기구는 총회, 이사회, 분과 위원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1부2과제가 상당기간 존속되다 1982년 환경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공동자가측정 실시에 의해 87년에 오염물질 자가측정실이 신설됨으로써 1부1실2과가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재활용과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폐유리재활용 사무국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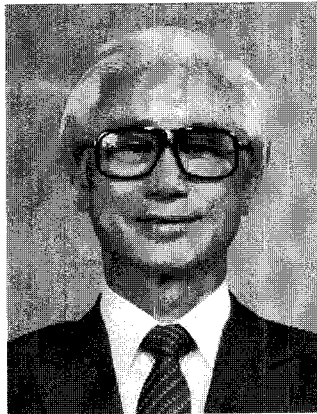
실무부서의 직원도 82년 부장 1명, 실장 1명, 계장 1명, 사무원 1명, 용원 3명이 계속 유지되어 오다 현재는 전무이사 1명, 부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계장 1명 등 5명으로 늘었다.

초기 조직강화에 주력

유리조합은 60년대 유리공업이 기반을 잡아가는 토대 위에 조직강화에 노력했으나 어려움이 많았고 70년대 들어 조합운동이 정상궤도에 올랐으나 1차 오일쇼크로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유리공업은 일대 수난을 겪으면서 폐업·도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그후 76년부터는 수출경기의 상승과 국내경기의 회복에 따라 유리병을 주종으로 한 유리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신규가입 유리제품 제조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조합이 전개한 조직강화 운동에 힘입어 조합창립 이래 최대의 조합원을 웅립, 가입률 86%에 이르게 됐다.

유리조합은 60년대 원자재의 공동



유리조합 정관열 이사장

구매사업에 주력하면서 조직정비, 자체자금 조성 등 조합준립의 기반구축에 힘쓰는 한편 밖으로는 조합원 생

산제품의 적정가격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병유리업계의 수율을 잠식하고 국민보건상 해독이 예상되는 외래병, 고병 재사용 금지운동을 전개하고 대단위 유리제품 공장의 설립을 추진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업무상 필요한 제반 내규를 제정하고 생산품목별 협의회 등 조합운영 환경정비와 운영내실을 다졌다.

80년대들어 우리나라 기업은 전례 없는 환경변화의 벽에 부딪쳐 국제무역 환경의 악화로 불황을 맞게 되었으나 각종 원자재 공동구매사업의 활발한 전개로 연간실적 30억원대를 돌파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표 2) 연도별 조합원 증감 및 출자좌수

연도	회원수	출자좌수	조합원 증감		조합 임직원수
			증 +	감 -	
1962	30	2,100	0	0	4
63	33	2,310	+3	0	4
64	32	2,240	0	-1	5
65	32	2,450	0	0	5
66	32	2,310	0	0	5
67	32	2,310	0	0	7
68	32	2,350	0	0	8
69	33	2,590	+3	-2	8
70	29	2,970	+5	-7	8
1971	32	3,420	+4	-1	7
72	32	3,420	+4	-4	8
73	50	4,500	+18	0	7
74	52	6,120	+8	-3	7
75	54	7,050	+6	-4	7
76	62	8,400	+2	0	7
77	62	8,400	+11	-3	7
78	75	15,700	+9	-3	8
79	75	36,900	+4	-6	10
80	61	33,500	+3	-14	10
1981	51	37,000	0	-10	9
82	48	34,800	+6	-9	9
83	48	35,200	+2	-2	9
84	54	36,400	+11	-5	9
85	50	34,800	+5	-9	9
86	67	39,700	+19	-2	9
87	69	39,800	+7	-5	9
88	76	42,300	+8	-1	9
89	77	42,400	+6	-1	9
90	81	45,100	+13	-9	8
1991	75	42,600	+3	-10	8
92	69	44,400	+3	-10	8
93	70	43,600	+1	0	8

이 시기에는 또 각종 지도사업, 조사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조합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제시대에 대처하는 일반 자질향상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재활용, 자원절약 앞장

9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조류인 환경문제와 관련 유리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상레도에 올라 조합의 위상강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같이 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조합은 올해 11가지의 기본 운영목표를 세워놓고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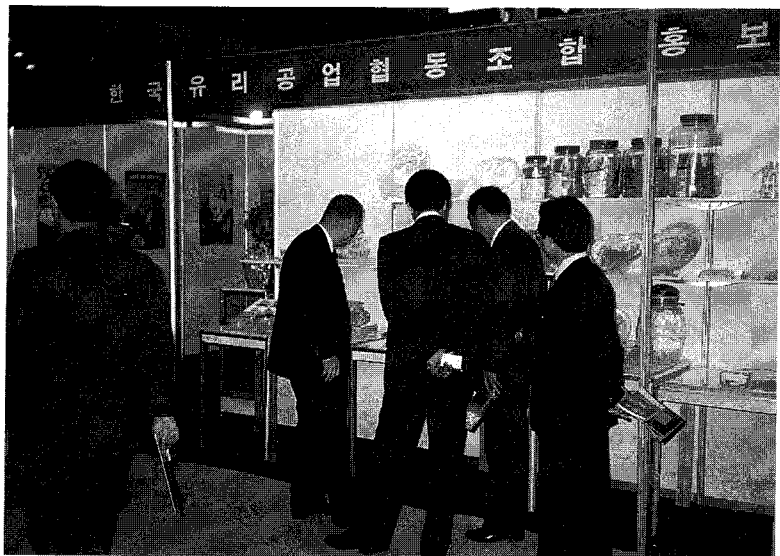
유리조합은 각종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유리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유리기술 심포지엄 개최, 유리제품 전시회, 해외 유리제조공장 견학 및 전시회 참가, 유리기술 세미나 선진외국 유리제조 기술자초빙 현장기술지도, 제3회 유리산업전 준비 등 알찬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유리공장 환경규제 완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 각종 기업활동의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폐유리 재활용 확대로 업체의 원가절감 및 폐기물 감량, 자원절약과 국가환경보전효과 적극 홍보, 폐유리 재활용체계 구축과 환경에 우수한 유리병 사용추진 등 폐유리 재활용 촉진사업 및 유리병 수요확대를 추진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리협동화사업을 확대하고 공동구판매



제8회 유리기술 심포지엄



제1회 유리산업전에 마련된 조합 홍보관

사업을 확대하여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며, 조합원의 권익보호, 유리제품지 등 발간 및 홍보사업 강화, 수출증대를 위한 사업, 유리산업 전반에 걸친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조사사업 강화, 환경 공동추진사업, 각종 단체품질인증제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품질인증 검사업무는 유리제주방용품 품질향상으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불량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엄격한 단체검사 기준과 품질검사 업무규정을 정해 출고전 로트마다 시험, 합격한 로트에 한해 '검사필증' 마크를 부여하는 등 사후 유통상품에 대한 유통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유리조합은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고병류 재사용금지, 외자 차관에 의한 유리병공장 신설반대, 유

리제품 가격인상, 농어촌개발공사의 유리병공장 신설반대, 소다회 가격인상과 관련한 운동,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유리식기류 수입자유화 반대, 유리제품 제조업 증기 고유업종 우선 지정 건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재조정 건의, 기술관리사 검직제 건의, 맥주병 등 유리병 회수를 위한 보증금제도의 철폐 촉구, 유리제품 제조업체의 소득표준을 인하 건의 등 유리산업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건의를 통해 업체들에게 그 파급효과가 크게 했다.

올해에는 페유리 재활용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사무국을 구성 업무를 시작, 내년에는 독립시켜 전담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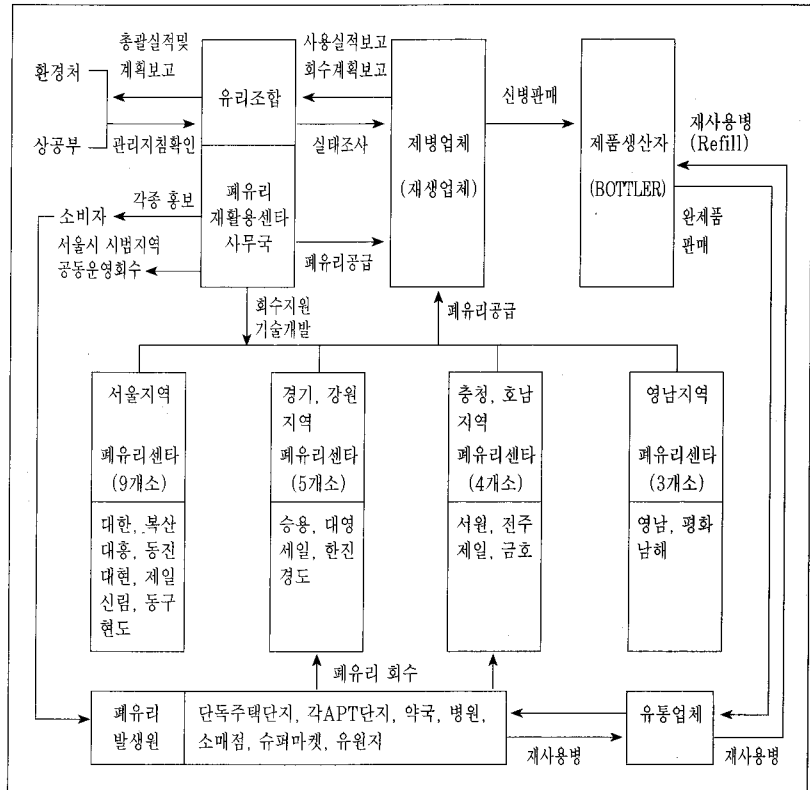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작과 함께 태동한 유리조합은 현재 상공자원부를 비롯한 9개 기관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10개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유리조합은 올해 공동구매를 활성화 시키고 품질인증 품목을 늘려 나갈 계획이며, 유리 용해로 관리·원료배합·에너지 절약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며, 하이테크인 뉴글라스의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산학연 공동으로 유리산업 발전의 장을 만들고 학계의 유리관련 논문 등 자료의 확보, 제공, 유리제품지, 유리산업현황지를 보완하여 명실공히 국내 유리산업의 최고의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김영길 전무는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각종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사들이 힘을 합쳐 조합이 펼치는 사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환경문제는 국민 모두가 해결해야 될 것이며, 재활용 산업

〔표 3〕 페유리 재활용센타 운영조직표



에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일본의 것을 모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정부와 업계가 수년간 연구·조사해서 적용함에도 협조 요청사항으로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제규정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유리는 환경에 친숙하고 우리 인류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생을 운택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제품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유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분명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곳이다.

오선진 기자